

+ 파나소닉 코리아(주)

파나소닉 명품 하이엔드 LX3의 후속작 '루믹스 LX5' 출시

F2.0-3.3 렌즈, 24-90mm 라이카 광각렌즈 탑재



파나소닉 코리아(대표 노운하, panasonic.kr)는 F2.0-3.3의 밝은 렌즈를 장착하고, 24mm 라이카 광각렌즈를 탑재한 1000만 화소급 하이엔드 디카 '루믹스 LX5'를 출시했다.

업계 최초로 F2.0 밝은 렌즈를 콤팩트 디카에 탑재한 '루믹스 LX3'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루믹스 LX5'는 24-90mm F2.0-3.3 광학 3.8배 라이카 바리오-즈미크론(LEICA DC VARIO-SUMMICRON) 렌즈를 탑재했다. 또한, 1/1.63 인치 113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여 풍부한 명암과 밝기를 표현해내고, 선명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초점거리는 24-90mm로 광각 촬영이 가능해 보다 넓고 원근감 있는 사진 촬영으로 단체 사진이나 풍경 사진 촬영에 용이하다. 광학 3.8배줌과 엑스트라 광학줌 최대 6.7배를 지원하여 디지털 4배줌 연계 시 최대 26.8배의 줌 기능이 가능하다. 새롭게 장착된 스텝 줌 기능은 사진 촬영 시 24mm, 28mm, 32mm 등 원하는 줌 배율로 촬영이 가능해진다.

ISO 80-128000까지 지원하며, 초당 최대 10장의 초고속연사 촬영이 가능하다. 1/4,000초 고속 셔터스피드를 지원하여 순간 포착에 유리하고, 셔터스피드를 뒷받침해주는 AF 성능도 향상되어 움직이는 피사체 포착에도 용이하다.

- 업그레이드 된 24-90mm F2.0-3.3 광학 3.8배, 밝고 선명한 명품 라이카 광각렌즈 탑재
- 원하는 줌 배율로 줌 조절이 가능한 스텝 줌 기능
- ISO 12,800 고감도 지원, 46만 화소 3인치 화이트 LCD 장착
- 크리에이티브를 높여주는 다양한 액세서리 장착 가능



[LX5_slant_LVF]



[LX5_white]

‘루믹스 LX5’는 독창적인 영상 촬영에 강점을 보인다. 크리에이티브 동영상 모드는 동영상 촬영 시 셔터스피드와 노출 정도를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마이 컬러모드와 필름 모드를 이용하면 11가지 프리셋 컬러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드까지 선택할 수 있어 세련되고 예술적 사진을 만들 수 있다.

46만 화소 3인치 4:3 TFT LCD를 장착했으며 주변 밝기에 따라 11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인공지능 밝기조절 시스템(Auto Power LCD)과 어느 각도에서나 LCD가 잘 보이는 와이드뷰잉앵글(Wide Viewing Angle) 기능도 장착했다.

‘루믹스 LX5’는 제품의 크리에이티브를 높여주는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일반 콤팩트 디카와 달리 ‘루믹스 GF1’용 전자식 뷰파인더(DMW-LVF1E)와 광학식 뷰파인더(DMW-VF1E) 사용이 가능하고, 렌즈 필터(52mm), 외장 플래시(DMW-FL220/DMW-FL360) 등 액세서리 장착이 가능하다.

파나소닉에서 자체 개발한 화상처리 기술인 비너스 엔진 FHD(컴퓨터 CPU에 해당)를 탑재해 고화질의 이미지를 노이즈 없이 빠르게 디지털로 변환시켜준다. 내장 플래쉬와 40MB 내장 메모리를 탑재했고, 저장방식은 SD, SDHC를 지원한다. 배터리 한 번 충전으로 약 400장까지 찍을 수 있다.

크기는 109.7×65.5×43.0(W*H*D)mm이며, 무게는 233g(배터리 제외)으로 한층 가벼워졌다. 화이트와 블랙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649,000원이다.

파나소닉 코리아는 디카 신제품 구입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을 등록하면, 3년 무상 AS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입문의는 02-533-8452로 하면 된다.